

쾰러 독일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존경하는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하께서는 IMF 총재로서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서 훌륭한 조언과 함께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는 동·서독 화폐통합 등에 중심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부흥개발은행과 IMF 총재로 재직하시면서 동유럽의 경제부흥과 세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각하의 오랜 신념처럼 독일이 보다 평화롭고 개방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룩한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통일과 EU 통합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본

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한 우리에게 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경제개발과 민주화 과정에서 물론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한결같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우리 두 나라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지난해 교역량 168억 달러, 독일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60억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한국의 해'인 올해에는 독일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 베를린 아·태주간 포커스 국가,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변 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독일은 준우승, 우리는 4강에 들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우리 두 나라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